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 이번 주부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청년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 임직식이 6/19(토)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 홍근희 / 권사: 홍승연, 장혜정, 안미영)
- 담임목사의 위임을 위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함께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찬양부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싱어, 악기 등)
- 영유아부 교사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정현 장로님 (한은석 집사님의 부친)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환희성도(성재호형제 아내)가 입원 중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도를 위한 구제헌금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섬김이		예배 및 봉사구역		교회 후원 선교지
담임목사	사무장로	날짜	기도	
한성호	소병찬	06.13	이재현	• 키르키스탄(다니엘 P)
교육목사	이정수	06.20	이태성	• 코소보(S00)
	정희경	06.27	유정훈	• 독일 쾰른(N00)
교육전도사		07.04	안미영	
	장재성			

베드로전서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Petrus 5:7 Alle eure Sorge werft auf ihn; denn er sorgt für euch.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 주일예배 1부 오전 12:0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369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28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이재현 집사
봉 헌	Kollekte	211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에스겔 36:22-28	인도자
찬 양	Lobpreis	주님 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마라나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20:00 온라인 예배 한성호 목사

예배안내	섬김예배	주일 10:30	청소년실	주일학교 예배	영유아/유치 유년/초등	주일 12:00	별관
	주일예배	주일 12:00	본당			주일 12:00	별관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청소년부 예배		주일 12:00	별관
				청년부 예배		금요일 20:00	본당

교회의 임직은...

교회직분은 자기가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교회직분은 세상 계급이나 자리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는 말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히브리서 5:4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렇듯 누구나 스스로 직분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직분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직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셨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왕과 선지자도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이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의 대리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사도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요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회중을 감동시켜 직분자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집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회중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럼 임직은 꼭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임직을 통해 주님이 직접 자기 교회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임직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회중을 이끌고, 회중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의 일을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임직자들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은 큰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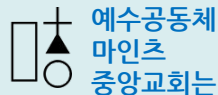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며, 충성된 일꾼인 직분자를 임직함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

:: 진정한 애국 ::

정직과 진실이 애국의 길입니다.

- 김형석 교수

*Honesty and truth are
the path to patriotism.*

- Kim Hyung-suk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보다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도리어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형통, 즉 최종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 11:6)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이를 속이는 자가 이 땅에서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직과 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하는 진정한 애국입니다.

기 도 제 목

- ❖ 우리 가정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로 믿음을 지키는 작은 교회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 ❖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성령충만, 말씀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 ❖ 투병 중이신 한정현 장로님(한은석집사님 부친)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 ❖ 입원 중인 이환희성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 ❖ 6월 19일(토) 임직받는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드린 인도구제헌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지의 귀한 단체, 귀한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 ❖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